

보도시점 : 2026. 5. 25.(월) 11:00 이후(5. 26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5. 22.(금)

## 빈집 철거 신청,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

- 농식품부·국토부, ‘빈집철거지원사업’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
-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및 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기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‘빈집철거지원사업’\*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일부터 「온라인 신청 시스템」을 도입한다.

\*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(주차장, 텃밭 등) 하는 조건으로 시·군·구에서 직접 시행

- 그간 ‘빈집철거지원사업’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·군·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.
-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,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.

□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.

-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‘빈집애(愛) 누리집([www.binzibe.kr](http://www.binzibe.kr))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.

**<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>**

구분	신청단계	행정 접수·처리 단계
현행 (오프라인)	○ (소유자) 시·군·구 직접 방문 신청 -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	○ (지방정부)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검토
개선 (온라인 병행)	○ (소유자) 모바일·PC 활용 신청 *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	○ (지방정부) <sup>1단계</sup> 온라인 신청서 검토 → <sup>2단계</sup> 선별적 구비서류 접수·검토

□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
- ❶ (소유자 편의 증대)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.
- ❷ (행정 효율성 제고)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 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.
- ❸ (사업 추진 가속화)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,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·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.

□ 농림축산식품부(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)와 국토교통부(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)는 “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부처 공동 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형철 (044-201-37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대영 (044-201-3735)
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	책임자	과 장	서정호 (044-201-1541)
		담당자	주무관	김보배 (044-201-1543)